

BNK금융그룹, 변화와 혁신으로 '글로벌 스탠다드 금융그룹' 도약

BNK금융그룹은 '지역과 함께 세계로, 고객과 함께 미래로'라는 경영이념을 수립하고, 2011년 3월 대한민국 최초의 지역 금융그룹으로 출범했다.

BNK금융그룹은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을 주축으로 BNK캐피탈, BNK투자증권 등 기존 자회사에 BNK자산운용(2015년 7월), BNK벤처투자(2019년 11월) 등을 자회사로 추가 편입했다. 2020년 기준으로 그룹 총자산 136조원, 자회사 9개, 손자회사(해외 현지법인) 4개, 임직원 수 8천311명에 이른다.

BNK는 코로나19 사태 속 대내외 금융환경 변화와 디지털 가속화, 글로벌 경기 부진 등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양호한 경영실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ESG(Environmental·Social·Governance :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ESG 경영은 전 세계적으로도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BNK는 ESG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구축 및 혁신 성장, 여신·투자 의사 결정 시 ESG 반영, 기후변

화 대응 추진 등 9개 주요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지난해 7월에는 유엔에서 제정한 '지속가능개발목표'(UN SDGs)를 달성하고,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에 가입했다. 향후 기후변화와 관련한 재무 정보 공개(TCFD) 및 탄소 정보 공개 프로젝트(CDP) 등을 통해 전사적인 탄소 감축 활동을 공개하면서 UN PRI, 유엔환경계획 금융 이니셔티브(UNEP FI)의 책임 은행 원칙 등 지속 가능한 경영과 관련한 글로벌 이니셔티브에 단계적으로 가입할 계획이다.

또 재생에너지 등 녹색 분야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부산은행은 2020년 11월 1천억원 규모의 국내 ESG 채권을 발행했다.

BNK는 한국지배구조원(KCGS)에서 실시한 '2020년 ESG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금융회사 부문 '지배구조 우수 기업'에 선정됐다. 908개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ESG 통합평가에서 2년 연속으로 최고 등급인 A+ 등급을 받았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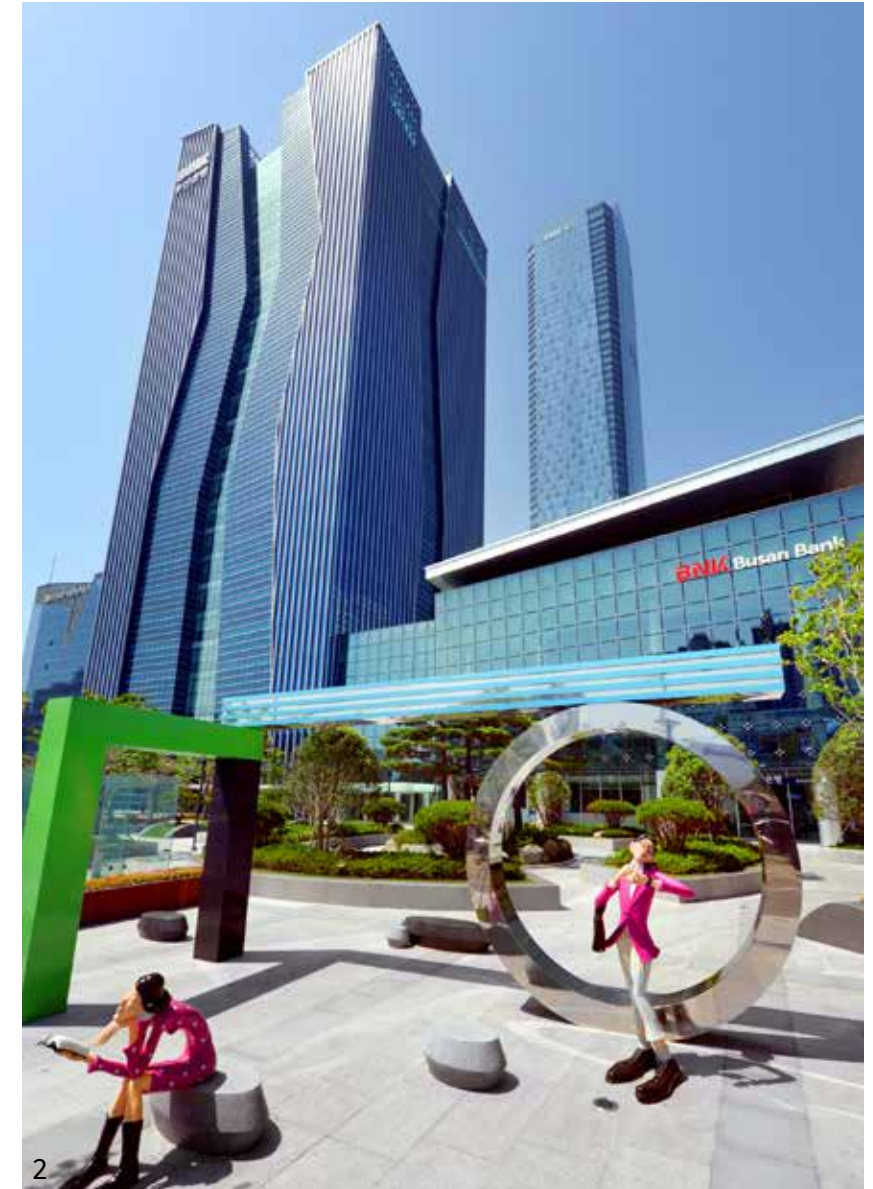
BNK는 2017년 9월 김지완 회장 취임 이후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안정성, 독립성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국내 금융지주 최초로 대표이사 회장 3연임 제한 제도 도입 및 이사회 중심의 의사결정 체계 구축, 그룹 경영진 성과 평가제도 개선을 통한 책임경영 강화, 지주 감사 담당 임원 선임 등을 통한 그룹 내부 통제 강화, 여신심사 프로세스의 투명성 제고 등 지배구조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BNK는 동남권 경기 침체,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지역 중소기업 및 자영업을 운영하는 서민들을 위해 포용금융을 확대하고 있다. 주거 안정을 위해 저금리 대출을 실시하고, 기초생활 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등에게 각종 수수료 면제와 우대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은행권 최초로 민·관·언론기관이 2019년부터 함께 실시한 부산은행 '자영업 미소 만개 프로젝트'가 좋은 반응을 얻었다. 총 1만 곳의 자영업체를 지원하는 이 프로젝트는 단순 금융 지원을 넘어 사업장 홍보를 위한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상권 분석 컨설팅 및 언론 홍보 등 종합 프로그램을 제공해 자영업자의 얼굴에 미소가 만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부산은행은 2019년 7월부터 지역 스타트업 지원센터인 '썸 인큐베이터'(SUM Incubator)를 운영하고 있다. '썸 인큐베이터'는 공모 후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선발된 혁신기업을 대상으로 금융과 비금융을 아우르는 종합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사무공간 무상 제공 및 성장단계별 맞춤형 코칭, 경영컨설팅, 전문가 멘토링 등 다양한 창업 육성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경남은행도 2020년 2월 '아이디어(IDEA, Innovation & Development, Eternal Accompany BNK) 인큐베이터'를 개소, 전기·전자 및 제조 분야는 물론, 사물 인터넷, 인공 지능, 플랫폼 등 미래 기술과 관련된 창업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❶



2

1 BNK금융 썸인큐베이터 2 BNK금융그룹 본사 전경
3 자영업 미소 만개 프로젝트 자영업지원센터



3

신용대출
ONE하는대로



부산은행
ONE신용대출

고객이 고민하던 시대는 지났다
미로처럼 복잡한 대출을 한 번에
직장인도, 공무원도, 전문직도, 자영업자도
하나의 상품에서 답을 찾다

ONE신용대출



개인 한도조회
바로가기



사업자 한도조회
바로가기



복잡한 대출신청을 심플하게

회원가입 없이 간단한 입력만으로
대출 결과 바로 확인



빅데이터가 추천하는 BEST&MUST

머신러닝 기법이 나의 성향을 분석하여
최적의 한도와 금리 추천



옴니채널 프로세스

영업점이든 모바일이든 채널이 바뀌어도
꿈김 없이 이어가는 신청 절차

- ONE신용대출은 개별 대출상품이 아닌 상품 조건 제공을 위해 구성된 상품 집합체를 의미하며 개별 상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부산은행 홈페이지(www.busanbank.co.kr)를 참조하시거나, 부산은행 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알아두실 사항
 - 대출이자 또는 원금을 약정한 날에 납입(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를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거래 제약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체이율: 대출금리에 3.0%를 가산(최고 15.0%) (대출금리가 최고 연체이율 이상일 경우 대출금리+2.0%)
 -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잔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일이 도래하기 전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신용평점 하락에 따라 금융거래 제약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고객님의 신용 상태 및 저희 은행의 심사기준에 따라서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 취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는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